

왕 (사사기 19:22-30)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복음에는 색이 선명할수록 권위가 있고 사단이 무너진다. 원색 복음 있으면 더 확실하게 사단에서 벗어나고 확실한 증인된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곳을 두고 우리를 원색 복음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미국, 남미를 복음화하는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 플랫폼이 되어져야 한다.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저주에서 건지는 내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 사람은 이 시대의 망대가 된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원을 받는다. 세상을 빛으로 볼수 있으며, 정복의 망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인생이 작품이 된다. 열두명의 사도들 다 이랬다. 교회사에도 많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같은 사람이다. 웨슬레나 무디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이다. 미국에 일을 하고 남미에 일을 하고 237나라에 이 일을 하려는 것이다. 바른 복음과 선명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충분한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증인될수 있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준비되고 증거를 가질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누리면 원색복음의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예다 뭐를 섞으면 섞은 복음의 사람이 된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이라고 말했다. 사사시대의 수많은 일들 중에 결론 딱 하나, 너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다. 너희에게 내가 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내 말씀이 너희에게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주 웃을수도 없고 울수도 없는 희한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결론이 뭐냐면 너희에게 내가 왕이 아니었다. 똑같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진짜 왕이다. 원색 왕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의 답이다. 성경은 항상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 한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리게 때문에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언약을 잡고 내 인생을 살면 이런 증거를 보게 된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 수없이 많은 예를 들어 설명한다. 그냥 말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되기 바란다. 언약과 함께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1. 왕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이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 전체의 결론을 말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했다고 했다. 당시에는 왕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왕이라는 말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왕인데, 그것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살았다. 즉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웃을수도 없고 울수도 없는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사사 입다 이야기는 너무나 참담한 이야기이다. 쓸데 없이 맹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누가 맹세하라고 했나? 그래서 자기 딸을 생으로 번제로 드리게 되었다.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왕이 아니니까 불안한거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잡으면 반드시 사단이 무너지고 적군이 무너진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흑시나 싶어 하나님께 해달라고 맹세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 그 맹세한 것을 그대로 행해버린 것이다. 행하지 않아야 더 맞는 것인데 말이다. 왕이 없으니 진짜 지켜야 할 믿음은 안 지키고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은 지키게 된 것이다. 왕이 없으면 사단의 역사로 머리가 이상해진다. 믿고 따라가야 할 때는 안 따라가고 안 따라가야 할 때는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열두조각내서 열두지파에게 보냈다. 19장에서부터 읽어보면 아주 기가막힌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은 요즘도 잘 안한다. 시체를 열두동강을 내서 부쳤다. 참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레위인이 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사람이었다. 그런데 첩을 갖는 것 자체가 시대적인 메시지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다 깨졌다는 것이다. 레위인이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할건가? 불량배를 찾아와서 그 남자 내 놔라 했다. 소동과 고모라와 같다. 천사가 찾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남자 내 놓으라고 했다. 그 때 루이 이야기 했다. 내 딸 둘을 데려가서 맘대로 하라 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랬다. 내 딸과 첩이 있으니 데려가라고 했다. 아주 뒤집어져도 완전 뒤집어 졌다는 말이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다. 자기 생각대로 아무데나 가서 절하는 것이다. 귀신이고 뭐고 다 필요없다. 인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왕이 되지 않아서.

맘대로 사는 분들 많이 있다. 과정일 것이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완전 복종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승리하고 정복한다. 승리와 정복은 누구나 원한다. 자기 방법으로 승리하고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부작용 계속 일어난다. 하나님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답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난리가 났다. 이런 일은 도대체 본문에서 말하기를 이런 일은 있던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지역이 베냐민 지역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모여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 불량배 넘겨라고 했다. 죽여서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베냐민지파가 거부했다. 우리 형제라고 안 내줬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다. 그래서 전쟁 붙었다. 이스라엘 전체 군대 모으니 30만명이었다. 베냐민 지파 한 지파에 2만 6천 명이었다. 그래서 세 번 전쟁했다. 처음 두 번은 이스라엘이 졌다. 하나님에게 기도했다. 누가 먼저 가나 하면서 기도했는데 저버렸다. 그래서 두 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만명 죽었다. 그러면 놀라운 메시지이다. 30만명대 2만 6천명이 싸웠는데 30만명중 4만명 죽었다. 메시지는 너희는 베냐민보다 더 나은게 있냐는 것이다. 베냐민만 잘못했냐는 것이다. 너희가 뭐 잘한게 있냐는 것이다. 사람을 열두동강을 내는 것이 문제냐? 내가 너의 왕이 안된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 메시지이다. 그래도 베냐민은 직접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전쟁에서 베냐민이 졌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베냐민을 쳤고 하였다. 그래서 그때 베냐민 남자 다 죽고 600명 남았다. 이 600명도 광야로 도망가버렸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또 맹세했다. 우리는 죽어도 우리 딸을 베냐민에게 며느리로 안 준다고 맹세하였다. 이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걸 또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그 뒤에 써 놓은 것이다. 그래서 다 하고 난뒤에 마지막 절이 바로 21장 25절이다. 결론 딱 써놨다.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하더라는 것이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무슨 문제를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절대적이다. 여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인생 전체를 걸고 말씀을 선택하라. 그러면 시대적인 증거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첫 번째가 우상숭배이다. 자기 생각대로 옳은대로 아무데나 가서 절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음행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 사사기 이야기 할 때, 시작할때부터 다시, 또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시 우상숭배를 시작했다는 말이다. 사사가 있어서 구해냈을 때에는 그런 짓을 안했다. 사사가 죽고 나면 즉시 돌아가서 우상숭

배 음행 한 것이다. 오늘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19장 1절부터 시작되었는데, 19장 1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 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자기 생각대로, 사람 생각대로. 할아버지가 당한 일을 아버지 대에는 잠잠했다. 손자 때에 할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한다. 성경 학자들은 사사기 기간이 350년 정도 된다고 본다. 그런데 이 반복하는 악순환이 7번 일어났다고 정리하고 있다. 한 50년 만에 한번씩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인간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 인간은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개도 없다. 이유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창조주에게 다 받아야 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내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웃기는 것이다. 나는 못한다고 결론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결론내야 한다.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똑같은 결론 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을 다 받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짝 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미래를 알아야 할 것이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그래도 죽을 수 없으니 산다. 누가 죽은 이후의 일을 아는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어디 있겠는가? 지옥 있다는 것 알면 누가 안 믿겠는가? 이런 거 뿐 아니라 결정적인 병에 걸렸다? 꿈쩍 못한다. 나는 죽는 게 겁이나 내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사람이었다. 나이 서른살에 병에 걸렸는데 꿈쩍할 수 없었다. 늘 생각하는 게, 내 약국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그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그런가 그런 생각했다. 한번은 점심먹으로 집에 올라가는데, 길가에 풀에 꽃이 피어 있었다. 그거보고 한 삼십분 서 있었다. 너는 올 가을에 죽겠지만 내년 봄에 다시 태어나지 않냐. 나는 죽어 버리면 끝인데. 이 마음을 형언할 수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었다. 문제는 와 있다. 죽어야 한다. 꿈쩍 못한다. 인간은, 이걸 죽기 전에 깨달아야 하는데, 인간이 죽을 때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교회를 찾게 되었다.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약도 사람도 답이 아니다. 나를 살릴 인간이 아무도 없었다.

인간에게는 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왕이 그리스도라고 하신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건질 왕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내 아들 보내어 저주 해결하겠다. 사단에 대해서는 아무도 속으면 안된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지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 드려야 한다. 최고의 행복이고 정복이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첫째는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다 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정복한다. 내 것을 남겨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히프는 뒤로 빼고 입만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정복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리면 정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인간은 이런 참담한 일은 당하지 않는다. 낭패도 당하지 않고 실패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주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항상 완전하다. 내가 뱀의 머리를 깨겠다. 완전한 약속이다. 내가 너를 저주에서 건지겠다. 반드시 일어나는 약속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완전하고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

2. 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을까? 묵상과 기도와

고백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난다. 성경의 결론이다. 수많은 예를 들어냈다. 모세가 이 언약을 잡았다. 홍해가 갈라진다. 요단강, 광야 다 정복해버렸다. 광야의 어떤 환경 조건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건든다. 언약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항상 누구나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묵상 중요하다. 생각을 해보는 것이다. 진짜냐 이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맞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것이다. 그러면 고백하는 것이다. 깊은 기도로. 이 영적 작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 마음에 언약의 말씀이 각인되었다? 그러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하나라도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즉시 사단이 무너진다. 그리고 내 인생은 그 말씀 그대로 된다. 그리하여 작품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축복이 있기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람 모세에게 가나안이라는 말씀이 들어왔다. 당연히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을 것이다. 고백하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기도했을 것이다. 그리스도 만난 사도바울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그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주셨다. 세계복음화. 당연히 언약 되었을 것이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백했을 것이다. 그는 인간에게 최고의 영향을 준 인물이 되었다. 로마 그 나라의 정치를 정복하였다. 바뀌어 버렸다. 문화적인 것도, 특별히 노예나 인간 신분에 관한 것도 아주 대단한 것을 이야기 했다. 우리도 미국의 정치를 정복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나? 렘넌트 중에서 정치인이 나와서 바른 정치를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미국에 이 복음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미국 교회에 복음운동을 전하여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밑에서 조용히 근본적으로 정치를 바꾸어야 한다. 렘넌트 7명 동일한 원리였다. 결론은 시대적인 응답이었다. 이 모든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왕이었다. 모세에게 가나안이라는 단어가 들어와 꽃혔는데, 어떻게 가나안이 왕이 안되었겠나? 사도바울에게 충격받은 그리스도가 이방인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잊어버리겠는가? 평생을 거기에 던졌을 것이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더 기뻐다. 나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런 일에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자기의 왕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뭐가 있어도 죽는다. 그럴바에야 눈을 뜨고 뭐를 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이 들어와서 답이 되기 바란다. 그냥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답을 발견하는,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는 예배. 주님은 요한복음 14:6절에 내가 길이라고 하였다. 모든 것의 길이다. 세상 정복, 기도응답, 사람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오직 진리이다. 나 외에 모든 것은 전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따라가보면 지옥이 있다. 천국가는 길을 하나 뿐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진리이다. 그리고 나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하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겠는가? 그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왕이 된다. 답은 하나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 안되는데에도 그리스도가 길이다. 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안됩니까? 이게 왜 내 안에 들어와 언약이 안됩니까? 그리스도를 안해서 그렇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 때가 있다. 지속하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신다. 뱀의 머리를 깬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을 정복한다. 문제 정복하고, 저주 정복하고, 전도 선교 정복하고 내 인생도 정복한다. 그래서 미국의 증인되고 남미 끝까지 237의 증인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